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㉔

起信論不云乎 當念唯心 境界即滅
기신론불운호 당념유심 경계즉멸
終不爲惱 又云 行者常以智慧觀察
종불위뇌 우운 행자상이지혜관찰
勿令此心 墮於邪網
勿令此心 墮於邪網
當動正念 不取不着 教旨如斯
當動正念 不取不着 教旨如斯
當근정념 불취불착 교지여사
當근정념 불취불착 교지여사
何得逐境 背心 而求佛菩提哉
何得逐境 背心 而求佛菩提哉
하득속경배심 이구불보리재
하득속경배심 이구불보리재
今時行者多云 但得念佛 往生然後
今時行者多云 但得念佛 往生然後
급시행자다운 단득염불 왕생연후
급시행자다운 단득염불 왕생연후
何有哉 不知九品昇降 皆有自心信解
何有哉 不知九品昇降 皆有自心信解
하유재 부지구품승강 개유자심신해
하유재 부지구품승강 개유자심신해
大小明昧而發現也
大小明昧而發現也
대소명매이발현야

或定意觀心
혹정 의신의
경에도 '최상의 진리를 알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를 상품으로 여긴다' 했는데 왜 총명하고 영리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우둔한 근기를 감수하여 최상의 진리를 모른 채 명호만 불러서야 되겠는가. 또 <만선동귀집>에는 구품 왕생에는 상하가 다 통한다. 때론 화국(化國) 중생제도를 위해 그들 근기에 맞춰 나타내는 국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응신(應身)을 보기도 하고, 혹은 보보(報土) 수행한 보람으로 얻은 부처의 땅에 태어나 부처님의 참모를 보기도 하고, 혹은 하루 저녁에 상지(上地) 보살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겁(劫)을 지나야 겨우 소승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혹은 영리하거나 우둔한 근기로, 혹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과 산만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하였다.

是知古今 達者 雖求淨土 以深信貴如
是知古今 達者 雖求淨土 以深信貴如
시지고금달자 수구정토 이심신진여

<기신론>에도 '오직 마음만을 생각하면 경계가 소멸되어 마침내 괴로움이 없다' 하지 않았던가. 또 '수행자는 항상 지혜로 관찰해서 이 마음이 샅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 집착하지 말라' 하였다. 가르친 뜻이 이런데 왜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왜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등지나
올바른 생각가져 집착하지 말라

등져서 불도를 구하려 하는가. 지금 수행자들은 흔히 염불해서 왕생하면 그만인데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한다. 이는 구품(九品) 정도에 왕생하는 아홉 가지의 품계의 단계가 있는 것이 다 제 마음의 믿음과 아는 것의 대소와 밝고 어두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해서이다.

專於定慧 故 知彼色相莊嚴等事
專於定慧 故 知彼色相莊嚴等事
전어정혜고 지피색상장엄등사
전어정혜고 지피색상장엄등사
無來無去 離於分齊 唯依心現
無來無去 離於分齊 唯依心現
무래무거 이어분제 유의심현
무래무거 이어분제 유의심현
不能眞如 不同凡夫 二乘 不知轉識現
不能眞如 不同凡夫 二乘 不知轉識現
故
故
불리진여 부동범부이승 부지전식현고

見從外來 取色分齊故 如是則雖曰
見從外來 取色分齊故 如是則雖曰
견종외래 취색분제고야 여시즉수합

이로써 고급의 달사(達士)는 정도를 구하되 진여를 깊이 믿고 선정과 지혜에 힘쓴다. 그래서 물질적인 색상이나 장엄 등의 일은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분별심을 떠나 오직 마음에 의해 나타나 되 진여를 떠나지 않는 줄을 안다. 그러므로 범부와 소승들이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고 밖에서 오는 줄로 알아 색상과 분별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經中一義 難行 難進 難入 難出
經中一義 難行 難進 難入 難出
경중이해제일의제 권진행자 위상품
경중이해제일의제 권진행자 위상품
豈以聰明 盡利之心 甘爲鈍根
豈以聰明 盡利之心 甘爲鈍根
기이총명영리지심 감위둔근
기이총명영리지심 감위둔근
不解一義 但稱名號 故 萬善
不解一義 但稱名號 故 萬善
불해제일의 단칭명호재 만선
불해제일의 단칭명호재 만선
同歸樂云 九品往生 上下具足
同歸樂云 九品往生 上下具足
동귀락운 구품왕생 상하구달
동귀락운 구품왕생 상하구달
或遊化國 見佛應身 或生報土
或遊化國 見佛應身 或生報土
혹유화국 견불응신 혹생보토
혹유화국 견불응신 혹생보토
觀佛眞體 或一夕而便登地 或經
觀佛眞體 或一夕而便登地 或經
도불진체 혹일석이변등상지 혹경
도불진체 혹일석이변등상지 혹경
劫而方遊小乘 或利根鈍根
劫而方遊小乘 或利根鈍根
겁이방중소승 혹이근둔근

가까이서 뵈 큰스님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마음의 눈 뜨면 모두 부처님”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오신 날.” 한 찬불가의 노래가사처럼 우리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쁜 날로 봉축한다. 하지만 경전에 눈뜬 이들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바람임을 어쩔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셨을 괴로운 날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거짓나’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서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오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김현 황악산에 투굴 하나 지어 수십년 간 두 문불을 정진하고 계시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을 만나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수행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앙은 해발 1천여m가 넘는 황악산 중실부. 이곳을 찾으면 날은 길목마다 봄의 향연이 한창이었다. 길가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연두빛 새순을 수줍게 내밀며 천연의 웅단을 만들고, 노랑 분홍 등 갖가지 꽃들이 알다시피 수를 놓고 있었다. 여기에 계곡물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이 봄의 향연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러한 자연의 신비로운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암자의 모습을 선뜻 내어 주지 않았다. 오색의 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가피편 언덕이 발걸음을 잡는다.

중앙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법당과 요사채는 암자답지 않게 웅장했지만 세속의 자취라곤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계가 바로 이런 곳인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관응 스님을 뵈고 예를 올린 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처음엔 “큰 절의 스님들이 잘 알지,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라고 손을 내저으셨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자 한동안 침묵하던 스님은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묵묵히나 듣고 가라 하셨다.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참나인 무아(無我)가 부처님인데 따로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근본 이유를 살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이나 수많은 설법을 했어도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 속의 부처 찾는 일이 제일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일심으로 뒤야 부처를 만나는 인연이 되는

기쁜 날이 되도록 서원하십시오.” 스님은 자신 속의 부처와 하나가 되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한다. 마음의 눈을 뜨면 중생이 곧 부처란 얘기다. 이처럼 스님께서는 우주만물의 형상만 보지 말고 그 본디의 성질을 깊이 사유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말을 비유한 설명을 덧붙이셨다.

“물은 본래 티 없는 청정한 명물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커피가루를 타면 커피가 되는 것이고, 된장이나 국거리를 넣어 끓이면 국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곧 물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 정화되면 본래의 청정한 명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육근(六根)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六塵)이 생겨서 18계가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은일이지만
자신속의 부처
찾는 일 중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육근으로 보는 것은 모두 가피이며 허상입니다. 물이 본래 한가지인 것처럼 생명의 실상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등이 나 라는 명맥을 세우고 자꾸만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위에서 소화됨으로써 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모두가 자기에게도 와서 하나로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골두하다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하나로 체화되는 묘력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무심 속에서 나 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라지면 자유자재로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생명체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한 법이란 곧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이다. 이 도리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에 진력해야 한다. 이는 관응스님의 수행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인격화한 분이 부처님이란 것이다. 깨끗이 세우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불자들에게 이 깨달음의 세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법문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는 불자들에게 깨친 자의 입장에서 진리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니 알 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것이다. 진리를 체득한 사람엔 모든 것이 하나로 환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엔 육신 따로, 마음 따로여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생의 근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진리를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맞는 대기법법을 하셔서 대중들을 이끄셨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정사(正身) 정념(正念)을 먼저 강조한다. 스님은 자주 법문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여러 개의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예요. 인간이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체를 삼일주재(三一主宰)한 진여법신(眞如法身)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날부터 죽음의 고통을 겪어 오고 죽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하면서 무한한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생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살피고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 및 무궁주 친견대법회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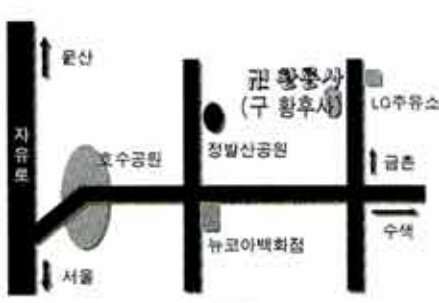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황룡사(구 황후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

기 위해 봉축 대법회를 봉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밀리에 전해져온 아주 소중한 보물인 무궁주를 친견할 수 있는 친견대법회도 봉행할 예정입니다. 황룡사에 오셔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좋은 인연공덕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삼을 이리시길 다같이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 < 대법회 안내 >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5월 1일 (음력 사월초파일) 오전 10시
◎ 장 소 : 일산 황룡사 법당(구 황후사)
◎ 문 의 : TEL 031-921-7884, 921-5445 FAX 031-905-4607



교통 3호선 마두역 하차 - 마을버스 7번 - 안내 받기시마을 8단지 앞 하차 - 황룡사

무궁주의 유래

무궁주란 : 무궁화꽃처럼 영원히 무궁하게 뻗어 나간다는 것.
웅이 기거하는 맑은 샘에서(3000년 이상으로 추정) 부화되며 여러개종의 그 한계를 물고 웅은 승천하며 아주 특별한 인연법으로 이 무궁주를 소장하게 되며, 인간이 운명할때 이 무궁주를 입에 담고 운명하면 내생에 원하는 삶이 꼭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후손은 6대까지 더없이 발복한다고 전해내려 오기 때문에 먼 이전 왕가에서는 비밀리에 이 무궁주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보물로 물려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악인이 무궁주를 소장하면 그 빛이 쏠멸되어 그 가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주를 친견만 하여도 모든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이 무궁주의 친견 기회는 특별한 인연에 의해 아주 어렵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황룡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4동 중정1로 10호